



11월 28일 불교출판문화협회 심사위원회는 2012년 ‘올해의 불서 10권’을 선정하고 발표했다. 대상에는 민족사가 출간한 김재영 저 〈초기불교의 사회적 실천〉이 선정 됐다. 불교출판문화상 ‘올해의 불서 10’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국내에서 조판 발행된 불교관련 도서를 대상으로 했으며, 38개 출판사로부터 모두 64종이 접수됐다.

■ 불교출판문화상 대상

〈초기불교의 사회적 실천〉 김재영 / 민족사

올해로 학술총서시리즈 26년의 역사를 이어온 민족사 학술총서의 65권으로, 초기불교의 역사적인 전법 개혁과 사회적 변혁의 과정을 통찰한 책이다. 민족사 학술총서 시리즈는 1986년 1월에 첫 번째 책인 〈한국조계종의 성립사 연구〉가 출간된 이후로 꾸준한 불교 전문 학술서의 맥을 이어오고 있다.

저자는 한국불교가 유래 없는 위기에 봉착했다고 보면서 한국불교의 위기는 몇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복잡한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 무엇이라고 꼬집어 말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위기가 현실적으로 한국불교의 사회적 리더십의 부재와 사회적 역할의 상실에서 기원한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한국불교가 다시 회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출가 중심의 선민불교를 대중 불교·대중 견성으로 개혁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즉 초기불교, 붓다의 역사적인 전법 개혁과 사회적 변혁의 과정을 통찰함으로써 한국불교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복원하고, 나아가 한국 불자의 사회적 리더십을 재할시킴이겠다 했다. 책은 부처님의 삶이 시종일관 그의 치열한 사회적 문제의식에 의하여 추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현장 중심의 접근 방법을 통해 규명해 내면서 교리가 사회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사람이 문제라고 말한다. 결국 부처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불교운동이라는 것이다. 불교운동은 사람이 하는 것이 지 교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기존의 선학연구들은 교리가 그 중심에 있었다. 사람에 대한 연구는 거의 방치되었다는 것이다. 사람이 없는 불교, 불교의 실질적인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없는 불교가 무슨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저자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현장을 중심으로 연구를 시작했고, 책은 그 연구의 결과물이다.

■ 우수상

〈한계를 넘어서〉 석담 / 동국대출판부

2011년 입적한 한국 비구니 승단의 가장 영향력 있는 스님 중 하나인 묘엄 스님의 생애와 현대 비구니 승단의 발달사를 볼 수 있다. 미국에 거주하면서 불교학 연구에 전념 중인 정인영의 책으로, 저자가 미국 버지니아대학 종교학과에서 쓴 박사학위 논문을 번역한 것이다. 반세기 동안 한국 역사의 격동기를 헤쳐 온 묘엄 스님의 생애와 더불어 현대 비구니 승단의 발달사를 면밀히 고찰했다. 비구니 이부승구족계를 부활시키고 불교사 최초의 비구니 율원을 세운 원력 그리고 여성교육에 대한 확신과 의지로 많은 어려움을 이겨낸 묘엄 스님의 이야기다. 문헌기록보다 구술과 구전에 의존해온 비구니 연구자들에게 자료의 수집, 분석의 방법, 그리고 해석 등의 전범을 제시한다. 묘엄 스님의 삶과 수행, 한국 비구니 승가공동체에 대한 생명력 넘치는 기록이다. 책은 묘엄 스님의 일대기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한국 비구니 승단의 재건과 정체성 확립 등을 조명하고 있다. 고문헌연구와 현장연구를 병행한 것으로 한국 비구니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했다.

〈영원에서 영원으로〉 불필 / 김영사

성철스님 탄생 100주년을 맞아 딸이며 제자인 저자가 처음 밝히는 성철 스님 이야기다. 지중한 인연으로 딸로 태어났지만 단 한 번도 아버지라 불러보지 못했고, 열여덟 살에 안경사 천재끝에서 빈 순간부터 저자에겐 아버지가 아닌 스승이었던 성철스님으로부터 받은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성철스님의 가족사에서 인간의 한계를 넘나드는 선지식들의 수행에 대해 이야기하며 도의 길뿐 아니라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성철스님이 저자에게 일깨워준 지혜를 들려준다. 제자들을 뜨겁게 품은 은사 인홍 스님부터 은 대중들을 감화시킨 큰스님의 범거랑까지 담아 한국불교 100년의 역사와 치열하게 수행하는 스님들의 아름다운 모습까지 만나볼 수 있다. 그동안 불필스님이 개인적으로 소장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성철스님의 범문과 편지, 사진 자료들이 실렸으며, 과거에 가뭇된 형태로 발표되었던 성철스님의 친필 범문 노트가 원문 그대로 담겼다.

■ 우수 도서

〈생각나무 1·2〉 스튜디오 돌 / 솔바람

저자가 스승에게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방법을 묻자 스승은 말한다. “고통이란 피하려고만 하면 잠시 동안은 기쁠 수 있겠지만 영원히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는 없네. 인생이 맑은 날만 있는 게 아니고 비오는 날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네.” 부처님과 옛 성현들의 말씀을 알기 쉽게 만화로 풀이하여 엮은 책이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를 새롭게 발견하여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책은 우리들 일상 속에서 문득 깨닫게 되는 삶의 지혜를 간결한 만화와 함께 담았다.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에게 생각의 윗터를 마련해 준다. 만화 속 주인공들의 대화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문제의 본질을 바로 보고 틀에 갇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해준다. 작가는 “이 세상에 어느 것 하나 의미 없는 것이 없으며,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에 모두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이 책은 바로 그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그 책의 의미를 말했다.

〈자기치유〉 조순희 / 정우서적

영적인 치유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책은 약물치료를 보완, 나아가서는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적 치료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약물치료라는 생물과학적 근거와 명상이나 이완과 같은 심리학적 치료, 믿음이라는 영적인 치유를 각각의 질병에 따라 손쉽게 적용하도록 이끌어준다. 우리들은 흔히 병이 발생했을 때 ‘치료’라는 말과 ‘치유’라는 말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치료와 치유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 치료는 누군가(의사)가 병을 ‘고치려’ 하고, 치유는 스스로 낫는 것을 말한다. 병의 완치는 환자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95%이고, 나머지 5%만이 의사나 주위에서 도와줄 수 있다. 식생활, 운동, 마음가짐 등등.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환자 자신의 마음과 의지이다. 오늘날 발생하는 질병의 80% 이상은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질병 사망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암과 심혈관계 질환의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에 따른 교감신경의 긴장으로 인한 것인데 우리 자신이 스트레스 경고신호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게 된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하루의 대부분을 바깥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느라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다. 만약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으면 몸 안의 지혜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알려 준다. 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어떻게 실생활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가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 뽕필 린본체 / 지영사

티베트 불교와 그 수행법을 가장 잘 표현한 티베트 경전 중 하나인 〈순상라메셀름〉의

힐링 에세이 열풍, 주역은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2012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독서의 해’다. 정부는 ‘책 읽는 소리, 대한민국을 흔든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하루 20분씩, 1년에 12권 읽기’ 캠페인을 벌였지만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출판계는 경영난에 시달려온 주요 서점과 도매상이 대부분 문을 닫았고, 연말에는 온라인서점인 대교리브로의 사업철수 소식까지 전해졌다. 2012년 출판계를 돌아본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에세이’ 뜨고, ‘소설’ 지고

2012년 출판계는 한 마디로 에세이 열풍이었다. 교보문고의 2012년 도서판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에세이 부분 판매 부수는 전년 대비 16.9% 늘어나고 판매액도 19.1%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에세이 열풍의 주역은 해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다. 130만 부가 팔리니까며 밀리언셀러를 기록했다. 거기에 범ભ 스님과 정목 스님의 에세이도 꾸준한 상위권을 지키며 에세이 열풍의 주역이 됐다. 이 밖에 4개월 만에 70만부를 돌파한 안철수의 〈안철수의 생각〉과 김난도의 〈아프니까 청춘이다〉도 꾸준한 판매를 기록하며 열풍에 가세했다.

이처럼 에세이가 강세를 보인 반면 소설 부분은 부진했다. 사상 최악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그 중에서도 국내 신간 소설의 부진이 가장 큰 부진이다. 전체 베스트셀러 100위권 안에 든 국내 소설 10권 중에서 올해 출간된 책은 박완서의 〈기나긴 하루〉, 이정명의 〈별을 스치는 바람〉, 정이현의 〈사랑의 기초: 연인들〉 3권에 불과했다. 에세이가 열풍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 미디어의 활성화와 맞물려 위로와 공감을 원하는 독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켰기 때문이라는 시장의 분석이며, 저조했던 소설 분야는 텍스트 소비 패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 부진의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100만 부 이상 밀리언셀러 탄생과 빈익빈 부익부 심화

2012년은 ‘힐링(치유)’의 한 해였다. 출판계는 힐링 에세이 열풍이었다. 해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130만부가 팔린 것으로 기록됐다. 하지만 이같은 현상 뒤에는 팔리는 책만 팔리는 ‘빈익빈 부익부’의 속제가 있었다. 교보문고 분석자료에 의하면 에세이 분야의 전체 판매 부수는 17% 가량 늘어난 반면 중수는 매년 줄고 있어 최상위권 책의 판매도 집중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박’ 아니면 ‘족박’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된 한 해였다.

마음·명상 관련 번역서 붐

‘힐링’ 열풍은 ‘마음’과 ‘명상’ 관련 번역물도 이어졌다. 2004년 출간 이래 아마존닷컴 심리치유 분야 8년 연속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타라브랙의 〈반아들임〉이 불광출판사를 통해 출간되는 등 〈마음이 몸을 치료하다〉(명상하는 자가 살아남는다) 〈명상하는 자가 살아남는다〉(농아버리기) 〈헤드스페이스〉(고요함이 들려주는 것들) 〈꽃과 쓰레기〉 등 10여 종이 넘는 마음 치유와 관련된 명상 번역서들이 잇따라 출간 돼 출판의 한 축을 이뤘다.

티베트 불교는 대중의 교리와 밀교수행의 최종 단계를 계승한 것으로서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티베트의 성취자들은 현교와 밀교의 광범위한 경전을 핵심 위주로 압축 요약할 필요성을 느꼈는데, 책은 그런 핵심적인 가르침을 하나하나 풀어 설명한 것으로, 현교와 밀교의 가교역할을 하는 안내서이다. 경전과 논서의 말초적 종파를 초월한 성취자들의 가르침을 전하며, 속담과 고향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까지 인용해 의미가 마음 속 깊이 와 닿을 수 있게 했다. 티베트 불교는 마음을 닦아서 열반에 이르게 하는 소승적 한계를 넘어 보리심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티베트 불교와 그 수행법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티베트 경전 중의 하나가 바로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이다. 불가(佛家)의 텍스트들은 대부분이 구전의 힘이 지켜낸 소중한 ‘가르침’들이다. 그 구전의 텍스트는 문자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으로, 문자의 모습을 한 당시의 살아있는 숨결인 것이다. 이번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 역시 구전의 힘이 간직한 소중한 텍스트임을 확인하는 것이며, 결국 하나의 스승으로 귀결되는 가르침을 확인할 수 있다.

번역본이다. ‘꾼상’은 ‘어떤 경우에도 선한’이란 뜻이고, ‘라메’는 ‘그 보다 높은 것이 없는’ 또는 ‘스승’의 뜻이며, ‘셀름’은 ‘구전 가르침’이란 뜻이다. 책의 부제는 ‘족첸의 통첸닝tik을 위한 예비수행지침서’다. ‘족첸’은 인간의 원초적 절대적 본성을 말하는 것이고, ‘통첸닝tik’은 족첸을 위한 수행법을 말한다. 책 곳곳엔 ‘스승’에 대한 언급이 많다. 수행하는데 있어서 스승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티베트 불교에서 스승은 붓다와 같다.

티베트 불교는 대중의 교리와 밀교수행의 최종 단계를 계승한 것으로서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티베트의 성취자들은 현교와 밀교의 광범위한 경전을 핵심 위주로 압축 요약할 필요성을 느꼈는데, 책은 그런 핵심적인 가르침을 하나하나 풀어 설명한 것으로, 현교와 밀교의 가교역할을 하는 안내서이다. 경전과 논서의 말초적 종파를 초월한 성취자들의 가르침을 전하며, 속담과 고향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까지 인용해 의미가 마음 속 깊이 와 닿을 수 있게 했다. 티베트 불교는 마음을 닦아서 열반에 이르게 하는 소승적 한계를 넘어 보리심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티베트 불교와 그 수행법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티베트 경전 중의 하나가 바로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이다. 불가(佛家)의 텍스트들은 대부분이 구전의 힘이 지켜낸 소중한 ‘가르침’들이다. 그 구전의 텍스트는 문자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으로, 문자의 모습을 한 당시의 살아있는 숨결인 것이다. 이번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 역시 구전의 힘이 간직한 소중한 텍스트임을 확인하는 것이며, 결국 하나의 스승으로 귀결되는 가르침을 확인할 수 있다.

〈소설 경〉 김경빈 / 문학의 문학

1984년 출간된 〈단(丹)〉의 작가 김경빈이 27년 만에 내놓은 장편 구도소설 이다. 이번엔 팔만대장경을 비롯해 남방불교에 전승된 ‘빠알리 경전’과 티베트에 전해오는 ‘티베트 대장경’ 등 3종의 불교 경전을 토대로 한 부처님과 부처님 말씀 이야기다.

“태어난 자는 왜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가?” 가족 모두를 잃게 된 열여섯의 라지는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의문을 갖기 시작한다. 타인의 먼 죽음이 아닌 자신에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는 절박한 ‘죽음’에 대한 답을 찾아 라지는 길을 떠난다.

책은 도리천에 난 천인 부부 라자와 시리마의 시점에서 시작된다. 경전을 바탕으로 한 〈소설 경〉은 부처님이 활동했던 기원전 4~5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초기 경전들의 이름들로 각 장을 구성했다. 특히 빠알리 대장경에 보이는 기사(記事)에 작가가 상상력을 더했다. 작가는 사상면에서 대체로 빠알리 대장경에 근거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한하여 한어 대장경의 사상을 원용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전반부의 내용은 빠알리 대장경의 사상과 대부분 일치하고, 후반부에서는 빠알리 대장경과 한어 대장경의 사상을 혼합하여 반영했다. 저자 김경빈은 1984년에 소설 〈단〉을 낸 후 불교에 귀의했다. 그리고 2010년 그는 25년간의 구도기(求道期)를 통해 배우고 얻은 바를 문학적으로 형상화기로 결심하고, 1년 4개월의 집필 끝에 소설을 완성했다. 저자는 “단테의 〈신곡〉과 괴테의 〈파

우스트〉,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서양문학들이라면, 〈소설 경〉은 동양 문명의 정수인 불교를 바탕으로 한 자기구원적인 문학이다.”고 자신의 소설을 소개했다.

〈산사는 깊다〉 지안 / 불광출판사

승가생활의 면면을 보여준다. 기침에서 취침으로 이어지는 산사의 하루 풍경을 비롯하여 출가부터 다비까지 건너가는 스님의 일생을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출가를 설명하면서는 저자가 직접 출가할 때 보았던 풍경과 마음을 회상하고, 목욕을 지키면서 음식을 먹는 공양을 이야기하면서는 인간 내면에 뿌리내린 구도 정신을 짚어낸다. 또한, 은사 스님이 금강산에서 목숨을 걸고 정진에 임했던 이야기를 통해서도 수행자에게 요구되는 마음가짐이 무엇인지 고민해 볼 기회를 준다. 저자는 산사체험이야말로 불교 수행의 분위기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톨로라고 말한다. 절집의 하루가 어떻게 짜여 있으며, 스님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사진과 함께 들려줌으로써 마음으로 공감하도록 이끈다.

〈불교와 무의 근대〉 김영진 / 그린비

그린비 ‘불교사상 시리즈’의 다섯 번째 책으로, 청대 학술의 대가이자 혁명가였던 장타이엔의 생애와 그의 사상을 조명했다. 장타이엔은 몰밀듯이 밀려드는 서양의 문물과 세력을 무(無)의 관점에서 해석했다. 장타이엔이 ‘무(無)를 무기로 삼아 어떻게 전통과 근대를 비판하고 국가와 자본주의에 반(反)할 수 있었는지를 살폈다. 장타이엔에 관한 국내 연구가 활발치 못했던 실정에서 이 책은 중국근대혁명의 한 축을 담당했던 장타이엔을 새롭게 발견해 내는 동시에 그와 함께 거론되는 여러 사상가들을 통해 근대 중국을 형성한 사상의 흐름을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국가관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나’도 없다는 그의 무아의 윤리는 불교와도 이어져 있는데, 1907년 발표한 ‘오무론’에서 무사상을 정치·경제 전반으로 폭넓게 확대시켰다. 특히 그는 자본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상업자본이 정치권력까지 장악하는 것을 경계했으며, 귀족을 대신해 자본가들이 인민을 억압하느니 차라리 평등한 전제정치가 낫다고 했을 정도로 그의 사상은 무정부주의에 가까운 것으로, 초월적 개체 ‘무아’를 통해 무의 대상으로 자기 자신까지 겨누는 그의 사상을 만날 수 있다.

〈만해 한용운〉 정수일 / 운주사

조국의 독립을 위해 불굴의 투쟁정신을 보여준 독립운동가, 불교의 근대화와 대중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불교사상가이자 스님, 민족의 현실과 불교사상을 문학으로 승화시킨 위대한 시인인 만해 선사의 생애를 만화로 압축 구성했다. 금봉이의 해설과 함께 재미 있는 만화를 보고 만해 한용운의 강직한 정신을 가슴에 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명 ‘유천’, 1879년 충남 홍성 출생. 14세에 서당 훈장을 한 그는 격동기에 민족과 조국을 위해 할 일을 찾아 집을 나서고 백담사에 이르러 연곡 스님을 만나 불문에 든다. 그의 계명은 봉완(奉玩) 범명은 용운(龍雲) 법호가 만해(萬海)이다. 경전 공부와 선수행, 일본 견문 등으로 1913년 〈조선불교유신론〉 저술, 〈불교대전〉(1914년) 편찬, 종합 교양지 〈유심〉 간행, 1931년 〈불교〉지로 불교개혁운동 전개 등의 활동상이 전개된다.

■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교양도서에 불서 3권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선정한 2012년 우수교양도서 ‘예정운 스님 편역의 〈경전순길〉과 자현 스님의 〈사찰의 상징세계〉, 주경 스님의 〈마음을 천천히 쓰는 법〉 3권의 불서가 포함됐다.

박재완 기자

〈경전순길-한 권으로 읽는 경전〉 조계종출판사

방대한 불교 경전 중에서 초기불교부터 대승불교까지 핵심 경전 19권을 한 권에 담은 책으로 경전공부에 임무를 못내는 불자들이 독자들에게 반가운 책이다. 진리의 길, 삶의 지혜를 제시함으로써 불교의 기본 핵심을 담고 있는 초기불교 경전 5권, 기원전 전후 대승불교로 넘어가는 과도기 경전으로 서양 그리스 왕과 동양 비구와의 문답 형식인 밀린 다왕문경, 출가자만이 아닌 재가자 성불과 인류의 사랑, 중생 평등을 내포한 대승불교 경전 9권, 중국에서 편찬되었다고 알려졌지만 불교의 진리와 지혜가 담긴 경전 4권을 시대별로 구성했다. 또한 각 경전의 해석이 끝나는 지점에선 해당 경전의 편찬 시기, 역경, 경전의 주요 사상 등을 정리해놓아 불교사에서 그 경전이 지니는 현대적 의미를 입체적으로 알 수 있게 했다. 부록에는 경전의 서술 방법과 사구계, 불교의 시대적인 구분과 경전 결집 등 불교경전과 전반적인 불교 역사를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왔다. 책은 1장 순다나파 타부터 19장 부모은중경까지 각 경전을 적절하게 소개하고 있다. 2장에서는 범구경, 3장 아함부, 4장 대반열반경, 5장 육방여경, 6장 밀린다왕문경, 7장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8장 금강경, 9장 유마경, 10장 화엄경, 11장 보현행원품, 12장 무량수경, 13장 법화경, 14장 열반경, 15장 승만경, 16장 원각경, 17장 사십이장경, 18장 불유교경, 19장 부모은중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찰의 상징세계〉 불광출판사

2,000여 년을 넘게 전승되어온 불교 고유의 문화가 우리 사찰에 어떻게 담겨있는지 알려준다. 탐의 충수는 왜 홀수일까. 불상은 왜 금색일까. 등 평소 사찰에 다니고 있는 불자라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는 것들은 문답형식으로 설명해 놓았다. 사찰의 구조가 갖는 전체적인 배경의 공명성, 사찰의 각 조각들과 불화, 사찰 주변에서 흔히 접하게 되지만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다양한 가치들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해준다. 일주문의 기둥이 하나인 의미가 무엇인지, 수미단과 단집에 담긴 상징은 무엇인지, 아라한은 어떠한 분인지 등에 대한 의문과 해답을 330여 장의 사진과 함께 자세한 설명으로 풀어주고 있다.

〈마음을 천천히 쓰는 법〉 마음의 숲

마음 쓰는 법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버리고 비우기, 답답하고 당당하기, 애정과 관심 갖기, 추억하고 소중히 여기기 등 모두 4장으로 구성되어 될 먹기, 필요 없는 물건 버리기 등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버림과 비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삶의 본질은 견딤이라는 가르침과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살았던 것들의 소중함을 일깨워준다. 이를 통해 어디로 가든지도 모든 채 쫓고 쫓기듯 살아가는 자신을 내려놓고 고요를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주며, 마음을 천천히 쓰는 법을 배우고 익혀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책이다.

2012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에 불서 3종 뿐

문화체육관광부가 6월 28일 발표한 ‘2012 우수학술도서’ 312종 중 불서는 3종에 불과했다. 2011년 9종에서 크게 줄었다. 선정된 불교 학술서는 최홍남 의 공저 운주사의 〈역경학 개론〉 무비 스님 저 불광출판사의 〈지지 강설, 상하〉 고혜련 저 일조각의 〈미륵과 도솔천의 도상학〉이다.